

마음에 기록해야 할 새 언약

출애굽기 19:1-6, 히브리서 8:1-13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멸망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후대의 각인을 바꿔야 한다.

1. 옛 언약 : 하나님이 주신 율법

- (1) 율법의 한계 : 다 지킬 수 없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음
- (2) 율법을 주신 이유 :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

2. 새 언약 :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 (1) 새 언약의 의의 :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
- (2) 새 언약의 내용 :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
- (3) 새 언약의 대상 :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이,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

결론 : 후대의 마음에 기록시켜야 할 새 언약

- (1) 율법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아닌 은혜의 복음 언약이 각인되게 하라.
- (2)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각인되게 하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참사랑 가족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이 주일에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태영아부에서 시작해서 대학청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말씀을 주시며, 종을 사용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며, 저의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했다. 그런데 히8:10에 보니까,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금년에 우리 목표, 우리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키는 교회’인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마음에 기록해야 할 새 언약’이라고 정했다. 왜 기록해야 하는가? 왜 새겨야 하는가? 지난주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과 역사에서 반복되는 큰 흐름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이 흐름을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 자기 중심적이고, 타락 중심적이고, 육신의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해 버리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서 그 흐름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그제 쌓여서 각인이 되고 삶의 뿌리가 되고 인성과 체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후대들은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각인을 심도록,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자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중요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 옛 언약의 내용과 의미

첫 번째 내용은,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옛 언약의 내용과 의미다. (1) 구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이 무엇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한다.

- 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창3:15의 복음을 이어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 ②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살면서 이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아들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것은, 그 당시의 로마라 할 수 있는 대국 애굽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던 것이었다. 그런데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문화 속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완전히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망해버린 것이다.
- ③ 그런데 이렇게 망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제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킨 율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구약 본문의 내용이다.
- ④ 이때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는 축복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당사자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갑(甲)이신 하나님이, 갑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을(乙)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푸셔서,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붙잡지만 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축복을 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 언약이다.

(2) 그러나 율법을 통한 언약은, 우리가 겪은 바와 같이 한계가 있다. 히8:7에는,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창세기 3장 체질 속에 있는 인간이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롭3:20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못 이기고 결국 어기게 되고 만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로 돌아가서 죄에 빠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옛 언약이다.

(3)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는가? 5절에 답이 나와 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몽학선생(蒙學先生)’이라고 표현했다. 구약에 나오는 성막, 성전, 절기, 제사제도, 제사장, 선지자, 왕, 전부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들이었다. 그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 즉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율법 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속지 마라. 어제 보니까 그럴 듯한 편지가 내 이름으로 왔기에 뭐가 하고 열어봤더니, ‘한기총, 한교연 소속 목사님에게.’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도 계시면 암만 계시도 소용이 없으니 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웃음)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 보낸 것이다. 소위 신천지 사람들인데, 우리교회에도 와 있을지 모른다. 눈을 뜨고 누구를 흘리던 뿔까 생각할 텐데, 어림도 없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데 가지 마라.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라면서, (웃음)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율법에서 빼내서 복음화로 바꾸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언어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음화되시기 바란다. 생각, 마음, 행동거지가 빨리 복음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까? “문 닫아!” 그러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다. 아이에게 문을 제대로 닫으라는 교육을 얼마나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은 한 번에 5cm씩 자라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 전에 닫던 것처럼 같은 힘을 가지고 닫았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진 만큼 세계 문이 확 닫혀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문 하나도 제대로 못 닫느냐고 해 버리면 상처가 되는 것이다. 엄마, “애야, 문을 네가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또 그 아이 속에 이미 다 집어넣으셨다. 그러니 아이의 영혼을 복돋워주고 살려 주어야 아이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인 현장에 가서 자꾸 지는 이유는, 너무 지시와 명령만을 받고, 30살이 되도록 엄마의 차마복에 의지하는 체질이 되어 버렸으니,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율법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Between Us>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다.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율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식을 자기가 못 가르친다고 한다. 영어 박사 가 자녀에게 영어를 못 가르친다. 관계가 율법적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못 해도,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못 하니?” 당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복음적이 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것을 사단이 속임수로 쓰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빨리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2. 굳게 붙잡고 각인시켜야 할 새 언약

두 번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각인시켜야 한다. 어떤 분은 복음을 각인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 차라리 못 시켜도 괜찮으니가 놓아주고 복음적으로 하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복음적으로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변하게 되어 있다.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어 있다. 우리 가정은 부부 사이도 굉장히 율법적이다. 자기는 그렇게 못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자녀와 부모 사이가 완전히 율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순화시켜서 복음적으로 만들면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어 있다.

- (1) 새 언약이 무엇인가? 히8:1을 다시 보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히8:6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이시라.” 무슨 말이나 하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제사장, 구약의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제사장, 옛 언약보다 좋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해 주신 증보자, 증재자이시다. 새 언약의 주인공 자신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났다.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는다.
- (2)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① 어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이들을 대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 사실 우리도 안 되지 않나.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고 말하게 된다. 이것은 신자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교역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안 된다. “잘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원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지옥 배경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 못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끝내 주셨다.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믿어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유양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이고, 굿 뉴스(good news)인 것이다. 유양겔리온은 헬라어로, 굿 뉴스는 물론 영어인데,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10:13의 말씀이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간다. 염치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주님의 발을 붙들면 산다.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웃기는 것들이야. 어찌까지 잘못해 놓고는 다음날 와서 용서해 달라 하고, 그 다음날에는 또 그런다. 맨날 반복한다.” 반복 안 하면 어쩔건가? 반복 안 하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악역에 사로잡혀 죽고 있지 않나.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나를 용서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데려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고아들이 왜 슬픈가? 어떤 사람이 파출소에 잡혀왔는데, 고향을 지른다. “나 좀 때려 봐요! 때려달란 말이예요! 왜 안 때리는거예요?” “너는 때릴 가치도 없어, 집이나 가라 이 자식아.” “그래도 때려주란 말이예요.” 막 우는 것이다. 이 아이가 고아다. 아무리 잘못해도,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애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부둥켜 안는 부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슬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주님이 나를 받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지 않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다. 그게 복음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의 말씀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6:47의 선언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다. 이미 받았다. 이미 얻었다. 이미 가졌다. 주님을 모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생각도 행실도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기망이 없는 나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새 언약인 것이다. 새 약속이다. 그래서 눅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재산을 다 해먹어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신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그 거지를 끌어 안고 입맞춘다. 그게 아버지다.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의 종의 하나로 써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때꾸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듣지도 않는다. “내 아들은 없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중들에게 말한다. “애들아! 내 아들에게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못 믿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못 입혀놓고 잡아 죽이려나보다. 목을 치러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글썽 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제일 살찐 송아지의 목을 치는 것이다. 이 송아지의 목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이 아들의 마음에 그제서야 깨달음이 온 것이다. ‘아, 아버지가 저 송아지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려는구나.’ 그때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좋은 설명인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는 죄는 한 가지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고, 그것 외에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다.

② 이 새 언약을 마음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는다. 그게 10절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선언이다. 주님이 선언해 버린 것이다. “무슨 소리냐, 아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애비다.” 주님이 선언하셨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된다.

③ 이때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말씀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이, 완전히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롬8:1-2의 말씀이다.

④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아무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이다. 11절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믿으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큰 자도 작은 자도 상관없이, 만민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이요, 그 범위의 끝을 알 수 없는 넓고 넓은 사랑인 것이다.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제목이 10절에 나왔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오늘, 반드시 새 언약을 우리 후대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도록 결단하시기 바란다. 짜증, 율법을 새기지 말고,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램넌트들의 생각에, 램넌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정말 기도를 모으시기 바란다.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강요하지 마라. 20살도 넘었는데 당신 뜻대로 자식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애야, 그게 그렇게 좋으니? 그러면 아빠도 그렇게 기도해 볼게.” 당신이 살아줄 생도 아인데 왜 당신이 움직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오늘 유아세례식이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여러분 자녀인 줄 알았더니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아이를 잘 기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신 서약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분별하고 만 13살이 넘었을 때 우리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서 입교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훈계로 기도하며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1)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의 법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노력, 공로 사상에 빠지고, 인본주의를 자녀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복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램넌트의 가슴에 심어야 한다.

(2) 새 언약이 무엇인가?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다. 이것을 램넌트에게 심어야 한다. 우리 집, 우리 식구만 챙기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법과 전혀 안 맞는 율법인 것이다. “아놔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게 율법이다. “애야, 공부 잘 해서 먼저 살리고 세계 살려라.” 남 주라는 이야기다. “부지런히 돈 벌어서 톡펄러 이상으로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미국 교회를 순방을 해 왔는데, 노회에 돈이 너무 많았다. 왜냐 했더니, 사람들이 죽을 때 유산을 자식에게 남기지 않고 교회에 남긴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개척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것의 두 배를 준다고 한다. 값이라는 이야기도 안 한다. ‘성공하면 그것 가지고 현금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라’고만 한다.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도, 우리는 그냥 선교사만 비쪽 보내고 끝인데, 밥 먹을 돈만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보내주고 끝인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한국 담당으로 보내면 일단 집에서 지어준다. 살아야 가서 전도를 할 것 아닌가. 다른 문화에 가서 이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 그래서 맨찮은 집을 지어준다. 벽돌로 집을 지어서 센터부터 만드는데 하는 것이다. 거기에 살면서 서서히 말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면서 복음을 준비하다가 4년째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실주한 목사님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아이고, 가난한 교회에서 나를 일본에 파송해 주었는데, 내가 빨리 전도해서 자립해서 본 교회를 도와야 할 텐데, 언제 그러고 있을까.’ 사모님이 또 일본어를 하니까 안 배우고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4년 재가 되니까 이해가 되었던 모양이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부인의 이야기 말고, 내가 네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욱 규모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으니 그것부터 준비해라.” 이번에 홍콩 갔는데 김형우 목사님 만났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입학해서 1년이 되었는데, 어렵지만 거이 해 내겠습니다.” 의지가 충천하더라. “생각 잘 했다. 심목사도 입학했으니 누가 더 잘 하는지 보겠다.” (웃음) 그랬더니 잘 하겠다고 하더라. 아이들과 사모님도 같이 왔기에, 마음껏 축복해 주고 왔다. 여러분의 사랑과 안부를 같이 전하고 왔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제발 공부해서 남 주라고 가르쳐라. 너만 하라고 하니까 아베 같은 놈이 자꾸 나오는 것이다. 돈 벌어서 민족, 세계 살리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그 선민 사상 때문에 망한 것이다. 톡펄러는 돈 번 것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도왔다고 한다. 그런 아이를 길러내시기 바란다. “마음껏 배우고, 기량을 향상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살리고 민족을 살려라.” 원대한 꿈을 심어라. 이런 게 아베와 독일 총리 메르켈을 다르게 한 것이다. 메르켈은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가난한 나라를 도우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계속 해 주기를 바라다는 것이다. 이번에 또 하던 총리만 네 번째 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로 길러야 한다. 우리 램넌트들을 세계를 품을 그릇으로 준비시켜서 되기를 축원한다. 강대국과 전 세계의 우상 문화의 흐름을 막을 깊은 각인전쟁 뿐이다. 새 언약을 각인시켜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제앙과 멸망의 흑암의 흐름을 막을 램넌트 제자를 일으키는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반드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이 문답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러더라.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까. 우리교회만큼 태영이부가 튼튼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신경써 주는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이 오신 것은 너무 잘 하신 것입니다.” 아기 엄마들이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교회 주변이 강남 8학군 아니냐. (웃음) 8학군에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감사하라. 축하드린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있다. “너희를 반드시 위대 한 하나님의 전도제자로 키울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바로 하자. 정말 램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마음에 기록해야 할 새 언약을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언약을 전달할 새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아직 없는 가정에는 아이를 주시고, 혹시 아니라면 입양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에 생명이 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램넌트 세워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